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80년 5월 26~27일 전남도청 마지막 밤 이야기”

<10> 정도상 소설 '꽃잎처럼'

전남도청에 모인 사람들 목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여는 것 등장인물은 모두 실재한 사람들

"5·18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광주·전남민주민중운동의 도도한 역사가 없었다면 5·18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도상 소설가는 광주 사람이 아니다. 경남 함양 출신이다. 5·18도 직접 겪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문학 출발은 5·18이다. 1987년, 오월항쟁 이후 운동권 학생들의 교도소 생활을 필진하게 그린 단편 '십오방 이야기'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에 앞서 같은 해 단편 '우리들의 겨울'이 전남대 5월문화상에 당선돼 오월문학의 중심작가로 떠올랐다.

작가 정도상이 40년 전 5·18 그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장편 '꽃잎처럼'으로 돌아왔다.

최근에 그는 광주의 노래,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표지석 제막식 참석차 광주를 찾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황석영 소설가가 '뫼비나리'를 개작해 만든 가사에 당시 전남대생이던 작곡가 김종률이 곡을 붙여 1982년 완성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 표지석 제막식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 노래는 1982년 2월 20일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합식이 진행되고 난 뒤, '뫼폴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창작됐다.

정 작가는 "이번 장면은 80년 5월 26일부터 27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전남도청의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그렸다"며 "주인공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모두 실재했거나 실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설 속 주인공 명수는 윤상원 경호원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소 강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정 작가는 어린 감수성을 지녔다. 디테일한 작품 구성과 풍부한 감수성, 생동감 있는 현장감이 특징인 것은 그의 성장과도 무관치 않을 터였다.

"주인공 명수는 윤상원 경호원을 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희순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희순은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실재했던 인물인 동시에 소설적으로 가공된 인물이기도 하지요."

작가는 이번 소설을 쓰기 위해 수차례 광주에 내려와 취재를 했으며 관련 자료를 탐독했다. 또한 "스물 두 살 박기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민중항쟁사' 등을 참고 했다"고 한다.

40년이 흘렀지만 소설 속 장면이 바로 눈앞의 일인 듯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은 그러한 노력 때문이다. 아울러 소설을 쓰는 동안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인 전용호 소설가에게 수시로 전화해 자문을 구했다.

이번 장편은 작가 정도상이 40년 만에 재구성한 현장 소설이자 기록이다. 전남도청에서 결사항전을 기다리던 시민군들에



'임을 위한 행진곡' 표지석 앞에서 있는 정도상 작가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의 가슴속에 침잠돼 있었다. 그는 "이 작품을 쓴 것은 5월 27일 도청에 모인 사람들의 목표가 오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5·18 당시 대학 삼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의 참상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후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전북대 독문과)에 다니면서 광주민중항쟁 당시 독일 기자 힌츠 페터가 찍었던 다큐멘터리를 학생들과 몰래 봤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물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으니까요."

정 작가는 이후 '5월의 체임이 내 체임'으로 바뀌어갔다고 고백했다. 후배들을 상대로 소위 말하는 '의식화 활동'을 하면서 5월의 진상을 알리는데도 참여했다.

"오월에서 오월로 이어지는 게 우리 세대의 숙명처럼 느껴져요. 그 새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서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 가능했고 민주정부의 수립, 남북관계의 진전, 촛불혁명 등이 모두 광주의 그 새벽에서 시작되었어요."

작가는 5·18의 전국화·세계화 방향에 대해서도 나름의 생각을 피력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작가는 계림말 큰사전 남북공동발전사업회 상임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8년에는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집행위 원장을 맡기도 했다. 일련의 활동은 모두 오월정신으로 대변되는 민주와 인권, 평화라는 가치에 수렴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전방위 아트 워커'(Art Worker)로 불리는 사진작가 윤광준씨는 지난해 흥미로운 에세이를 출간해 뉴스메이커가 됐다. '내가 사랑한 공간들'(을유문화사 펴냄). 이미 '심미안 수업' '윤광준의 생활명품' 등으로 탄탄한 독자층을 거느린 그는 책에서 수년간 아름다운 공간을 순례한 대장정의 성과를 담았다. 그가 사랑한 공간의 '리스트'에는 박태후 한국화가의 나주 죽설현을 포함해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 부천아트벙커 B39 등 20여 곳이 등장한다. 책에 이름을 올린 일부 공간은 미적 안목을 높이려는 이들로 문전성시적 이었다.

내건 핵심 콘셉트다.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섬 주민들에게 공중목욕탕은 개인적인 휴식처이자 이웃들과 안부를 주고 받는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무주군은 공공건축 프로젝트 이후 '2016년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도시대상', 신안군은 2016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국토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가 '햇빛'을 보기 까지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996년 무주군은 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건축의 대가로 불리는 고 정기용 건축사에게 30여 곳의 공공시설을

브랜드가 된 공중목욕탕

건축물 열전'을 연재하는 덕분에 요즘 윤 작가처럼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다니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제주의 포도호텔을 시작으로 GS칼텍스 여수여울마루, 세종시 국립도서관, 클레이파크 김해미술관,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신안 압해읍 종합복지회관 등을 둘러봤다.

그중에서도 무주군과 신안군은 관공서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깬 흥미로운 현장이었다. 인구 2만 4000명의 무주군은 균형 뒷편 지상 공간을 주창자가 아닌 주민들의 섬터로 꾸몄고, 신안군은 복지회관 2층에 공중목욕탕을 설계해 지역민들의 사랑방으로 키우고 있다. 실제로 무주군청의 뒷편은 자동차들이 점령한 다른 관공서와 달리 화려한 꽃이 흐드러지게 핀 생태공원이었다. 신안군의 압해읍 종합복지회관 역시 삭막한과는 거리가 먼 '열린 공간'이었다. '물, 중정, 명상'. 압해읍 복지회관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가 건물 2층 목욕탕을 설계할 당시

말기는 '통근 결정'을 했다. 신안군은 수년간 충남 공주 일대에서 마을회관 프로젝트를 추진해 화제를 모은 유현준 건축가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2014년 박우량 군수가 리브콜을 보내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복지회관 건립에 산인 2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안군과 군의회, 마을 주민들이 의기투합한 일화는 유명하다.

최근 광주시가 지역에선 처음으로 건축분야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함인선 한양대 특임교수를 초대 광주시 총괄건축가로 임명된 시는 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양적공급 위주의 건축정책과 획일적 디자인의 공공건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모조품,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조경까지 도시의 품격에 맞는 건축문화를 이끌어내는 구상체가 되길 바란다. 이제 건축은 도시를 빛내는 브랜드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제작국장·박진현 문화선임기자)

'광주 5·18' 회화·음악 등 미디어아트로 표현

ACC, 24일까지 레지던시 보고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이 열리고 있다.

ACC는 오는 24일까지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제1 전시실에서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마감 전시회를 연다. '사람의 빛'을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전시에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 14명이 참여했으며 회화, 페인팅, 영상, 음악, 소리, 조각설치 등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와 예술 감독은 회의 등을 통해 '5·18'을 주제로 이야기를 만

들기 위해 시작적인 퍼포먼스와 영상, 회화 등을 융합했다.

예술감독을 맡은 진시영 작가는 "이번 결과보고전은 '광주 5·18'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작품들로 채워졌다"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하는 새로운 시도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한국예술광주시연합회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지난 1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입주 작가들의 창작공간과 지원비, 레지던시 프로그램 활동 등을 지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유진 작 '무제'

'소프트 파워' 대체어로 '문화적 영향력'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소프트 파워'를 대체할 쉬운 말로 '문화적 영향력'을, 언박싱은 '개봉기'로 선정했다.

'소프트 파워'는 정보 과학이나 문화·예술 따위를 앞세워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언박싱'은 상자를 열어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또는 그런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뜻한다.

또한 '쇼트폼' 대체어로는 짧은 영상, 짧은 형식이 대체어로 선정됐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1~13일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이같이 정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